발간자료

• **전략 Weekly:** 이익 전망치의 상향조정 폭이 크지만, 전역적인 상향이 아니라 특정 산업에 극단적으로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반도체가 대부분의 이익 상향을 견인하는 가운데 조선, 상사/자본재(방산), 헬스케어, 화장품 등 대부분 익숙한 업종들에서 전망치 상향이 진행되고 있음. 반도체의 주가 상승이 빨랐다고는 하지만 아직 시장 이익 대비 시총비중이 낮은 상태인 만큼 주도주 지위를 놓치진 않을 것으로 판단. 주도주의 상승탄력 둔화 구간에서의 대안도 언급한 실적 전망 상향 업종 내에서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투자전략 조병현)

• **NAVER_BUY/36만원:** 커머스 광고: 계절적 성수기와 함께 홈피드 효과 지속될 전망.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이 성사된다면 국내 스테이블코인 산업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1Q26에는 쇼핑 에이전트, 2Q26에는 통합 에이전트를 출시 계획
(인터넷/게임/레저 김혜영)

• **카카오_BUY/8만원:** 4Q25E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 부합 전망. 톡비즈: 광고형 매출은 카카오톡 개편 효과가 온기 반영되어 가이던스였던 전년 대비 성장 10%는 상회할 전망. 신사업: 카카오페이 금융서비스 부문 강화. 1Q26에 카나나 정식 출시 계획
(인터넷/게임/레저 김혜영)

• **포스코홀딩스_BUY/45만원:** 4Q25 실적 컨센서스 하회. 철강 판매량 부진과 자회사 이익 손실 기여. 포스코이앤씨는 4Q25E에도 2,000억원대 손실 반영. 이차전지소재사업은 포스코퓨처엠 부진과 리튬 가격 상승에도 낮은 가동률로 1,000억원대 적자. 국내의 수입산 열연 재고 소진 시점과 자회사 적자 기여 시점 이후의 회복을 바라봐야 하는 시점
(철강 이정우)

• **SK바이오팜_BUY/15만원:** 4Q25 연결 매출액 1,766억원(+8.3% YoY), 영업이익 492억원(+21.1% YoY, OPM 27.9%) 추정. 예상 대비 적은 비용 집행에도 불구하고 GTN rate 상승 및 도매상 재고 조정 영향으로 시장 기대치 하회할 전망. 2026년에는 엑스코프리 처방 확대를 중심으로 second product 도입, 세노바메이트 적응증 확장(PGTC, 소아 대상), 방사성 치료제 임상 진전에 따른 신약 가치 반영 기대
(제약/바이오 이지수)

• **에이피알_BUY/32만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포함한 성수기 효과로 시장 기대치 충족 전망하며 연내 오프라인 채널 확대 목표. 기타: B2B 유통 초입으로 빠른 재고소진에 따른 재구매 이어져 QoQ 매출 성장 전망. 유럽: 1H26E 유럽 4개국 추가 런칭 목표. Ulta Beauty와 함께 2026년 글로벌 소비재 구매 행태 변화의 최대 수혜주
(의료기기/화장품 박종현)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89.4%	HOLD : 10.6%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